

성공의 법칙 · 리딩

# 보상

COMPENSATION

랄프 왈도 에머슨 · 1841

나폴레온 힐이 3개월마다 재독을 지시한 에세이  
1903 Roycroft edition · Public Domain · LOSKO 옮김

이 신의 세계에서,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미친 듯 거품  
이는 바다 가운데서, 사람과 나라가 마치 아무 법칙도 없는 듯  
스러지고 불의한 일에 대한 심판이 준엄하게도 지연되는  
이곳에서, 그대는 그러므로 정의란 없다고 생각하는가? \* \* \*  
\* 내 그대에게 다시 말하노니, 정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지상에서 내가 발견한 굳건한 것은 하나뿐이니, 곧 의로운 것,  
참된 것이다. — 토머스 칼라일

소년 시절부터 나는 보상(Compensation)에 관한 글을 쓰고  
싶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주제에 관해서는 삶이 신학보다 앞서 있고  
사람들이 설교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교의를 이끌어낼 자료들은 그 끝없는 다양함으로 내  
상상을 매혹했고, 잠 속에서조차 늘 내 앞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든 연장이요, 바구니 속의 빵이요, 거리의 거래요, 농장과  
살림집이며, 인사와 관계, 빛과 외상, 인격의 영향력, 그리고 모든 인간의  
본성과 타고난 자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성의 한  
줄기 빛을, 전통의 흔적에서 말끔히 벗어난 이 세계의 영혼의 현재적  
작용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사랑의 밑물에 흠뻑 잠긴 채, 언제나 있어 왔고 언제까지나 있어야만  
하는 것 — 지금 실제로 있기에 그러한 것 — 과 대화할 수 있으리라.  
나아가 이 진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저 밝은 직관들과  
조금이라도 닮은 언어로 이 교의를 진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여정의 수많은 어두운 시간과 굵은 길목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별이 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 교회에서 설교 하나를 듣고 이 소망은 더욱 굳어졌다. 정통  
신앙으로 존경받는 그 설교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최후의 심판 교리를  
풀어놓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악인은

성공하고 선인은 비참하다고 전제한 뒤, 이성과 성경에 근거하여 내세에서 양쪽 모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역설했다. 회중은 이 교리에 아무런 거부감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모임이 끝나자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흩어졌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선한 이들이 현세에서 비참하다는 설교자의 말은 무슨 뜻이었는가? 집과 땅, 관직, 포도주, 말, 옷, 사치를 파렴치한 자들이 차지하고 성인들은 가난하고 멸시받는다는 것, 그리고 훗날 이 성인들에게 그와 똑같은 쾌락 — 은행 주식과 더블론 금화, 사슴 고기와 샴페인 — 을 주어 보상하리라는 것인가? 그가 말한 보상이란 틀림없이 이것이다. 달리 무엇이겠는가? 기도하고 찬양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자유인가? 그런 것이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제자가 끌어낼 정당한 추론은 이것이었다. "우리도 죄인들이 지금 누리는 좋은 시절을 언젠가 누리게 되리라." 혹은 그 극단적 함의까지 밀고 나가면 이렇다.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우리는 나중에 죄를 지으리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지금 죄를 짓고 싶다. 성공하지 못했으니 내일의 설욕을 기대할 뿐이다."

오류는 악인이 성공한다는, 곧 지금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엄청난 양보에 있었다. 설교자의 맹목은, 진리로부터 세상과 맞서 세상의 잘못을 단죄하는 대신, 영혼의 임재와 의지의 전능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선과 악, 성공과 허위의 기준을 세워 죽은 것들을 그 현재의 법정으로 소환하는 대신, 남자다운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장의 저열한 평가에 굴복한 데 있었다.

나는 오늘날의 대중적인 종교 서적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저열한 어조를 발견하며, 문인들이 이따금 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도 같은 교리를 전제하는 것을 본다. 우리의 대중 신학은 그것이 밀어낸 미신들보다

품위에서는 나아졌으나 원리에서는 나아진 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학보다 낫다. 그들의 일상이 이 신학의 거짓을 폭로한다. 순수하고 향상심 있는 영혼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교리를 뒤로하고 떠나며, 모든 사람이 때때로 그 거짓을 느끼되 다만 논증하지 못할 뿐이다. 사람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학교와 설교단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넘기는 말도, 대화 중에 나온다면 아마 침묵 속에서 의문에 부쳐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섭리와 신의 법칙에 대해 독단을 편다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다. 그 침묵은 듣는 이의 불만을, 그러나 동시에 자기 생각을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없음을, 지켜보는 이에게 충분히 전해 준다.

나는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보상의 법칙이 지나는 길을 가리키는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해 보려 한다. 이 원의 가장 작은 호 하나라도 참되게 그려낼 수 있다면 기대 이상으로 행복하겠다.

양극성(polarity), 곧 작용과 반작용을 우리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만난다. 어둠과 빛에서, 더위와 추위에서, 밀물과 썰물에서, 남성과 여성에서, 동식물의 들숨과 날숨에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서, 유체와 소리의 파동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에서, 전기와 갈바니즘과 화학적 친화력에서. 바늘의 한쪽 끝에 자기(磁氣)를 일으키면 반대쪽 끝에는 반대의 자기가 생긴다. 남극이 끌어당기면 북극은 밀어낸다. 여기를 비우려면 저기를 응축시켜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이원성이 자연을 둘로 가르니, 모든 사물은 하나의 반쪽이며 자신을 온전하게 해 줄 다른 사물을 암시한다. 정신과 물질, 남자와 여자, 주관과 객관, 안과 밖, 위와 아래, 운동과 정지, 긍정과 부정이 그러하다.

세계가 이렇게 이원적이듯,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도 이원적이다. 사물의 전 체계가 모든 입자 속에 재현된다. 소나무 잎 하나에, 옥수수 낱알 하나에, 모든 동물 종족의 개체 하나하나에, 바다의 밀물과 썰물, 낮과 밤, 남자와 여자를 닮은 무언가가 있다. 원소들 속에서 그토록 장대한 그 반작용이 이 작은 경계 안에서도 되풀이된다. 예컨대 동물계에서 생리학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떤 생물도 편애받지 않으며 일정한 보상이 모든 재능과 모든 결함의 균형을 맞춘다. 한 부분에 주어진 잉여는 같은 생물의 다른 부분에서 덜어낸 것으로 지불된다. 머리와 목이 커지면 몸통과 사지는 짧아진다.

역학적 힘의 이론도 또 하나의 예다. 힘에서 얻는 것은 시간에서 잃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행성들의 주기적 오차, 곧 스스로 보정되는 오차도 또 다른 사례다. 정치사에 미치는 기후와 토양의 영향도 그렇다. 추운 기후는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척박한 토양은 열병도, 악어도, 호랑이도, 전갈도 기르지 않는다.

같은 이원성이 인간의 본성과 조건 밑에 깔려 있다. 모든 과잉은 결핍을 낳고, 모든 결핍은 과잉을 낳는다. 모든 단맛에는 신맛이 있고, 모든 악에는 선이 있다. 쾌락을 받아들이는 모든 기능에는 그 남용에 대한 동등한 형벌이 부과되어 있다. 그 기능은 제 절제를 제 목숨으로 책임져야 한다. 한 알의 재치에는 한 알의 어리석음이 따른다. 농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얻었고, 얻는 모든 것에 대해 무언가를 잃는다. 재물이 늘면 그것을 쓰는 자들도 늘어난다. 거두는 자가 너무 많이 거두면, 자연은 그의 궤짝에 넣어준 만큼을 그 사람 자신에게서 빼앗는다. 재산은 불리되 주인은 죽이는 것이다. 자연은 독점과 예외를 미워한다. 바다의 파도가 가장 높이 솟구쳤다가 수평을 찾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갓가지 처지의 차이는 스스로 평준화되려 한다. 오만한 자, 강한 자, 부유한 자, 운 좋은 자를 다른 모든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자리에

끌어내리는 평준화의 사정이 언제나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비해 너무 강하고 사나워서, 기질과 지위로 보아 나쁜 시민 — 해적 기질이 살짝 섞인 음울한 무뢰한 — 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은 그에게 마을 학교 부인 선생의 반에서 곧잘 배우는 귀여운 아들딸 한 무리를 보내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 그의 험상궂은 찌푸림을 부드러운 예절로 편다. 이렇게 자연은 화강암과 장석을 무르게 만들고, 멧돼지를 꺼낸 자리에 어린 양을 들여앉히며, 저울의 균형을 참되게 지킨다.

농부는 권력과 지위가 좋은 것이라 상상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백악관의 값을 비싸게 치렀다. 그것은 흔히 그의 평화 전부와 그의 남작다운 자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대가로 요구했다. 세상 앞에서 잠시 그토록 눈에 띄는 걸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옥좌 뒤에 꾀꾀이 선 진짜 주인들 앞에서 기꺼이 흠을 씹는다. 아니면 사람들은 천재라는 더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위대함을 바라는가? 여기에도 면제는 없다. 의지의 힘이나 사상의 힘으로 위대해져 수천의 사람을 내려다보는 자에게는 내려다보는 일의 책임이 있다. 빛이 밀려들 때마다 새로운 위험이 따라온다. 그에게 빛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그 빛을 증언해야 하며, 쉽 없는 영혼의 새로운 계시들에 대한 충실로써, 그에게 그토록 짜릿한 만족을 주는 공감을 언제나 앞질러 가야 한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을 미워해야 한다. 세상이 사랑하고 감탄하고 탐내는 모든 것을 그가 가졌는가? 그렇다면 그는 사람들의 감탄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신의 진리에 대한 충실로 그들을 아프게 하여, 조롱거리와 야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법칙이 도시와 국가의 법을 쓴다. 이 법칙은 티끌 하나만큼도 제 목적을 저지당하지 않는다. 그것에 맞서 쌓고 꺾하고 결탁해 봐야 헛일이다. 사물은 오래 잘못 관리되기를 거부한다. *Res nolunt diu male administrari*(사물은 오래 잘못 다스려지려 하지 않는다).

새로운 악을 제어할 장치가 보이지 않아도, 그 제어 장치는 존재하며 반드시 나타난다. 정부가 잔인하면 통치자의 목숨이 위태롭다. 세금을 너무 높이 매기면 세수는 아무것도 걷히지 않는다. 형법을 피에 굶주리게 만들면 배심원은 유죄 평결을 내리지 않는다. 자의적인 것, 인위적인 것은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 인간의 참된 삶과 만족은 처지의 극단적인 가혹함도 극단적인 행운도 모두 비켜 가서, 온갖 다양한 환경 아래에서 태연하게 자리를 잡는 듯하다. 어떤 정부 아래에서도 인격의 영향력은 같다. 터키에서나 뉴잉글랜드에서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집트의 태고 폭군들 아래에서도 인간은 교양이 허락하는 만큼은 자유로웠음이 틀림없다고 역사는 정직하게 고백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주가 그 모든 입자 하나하나 속에 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자연 속의 모든 것은 자연의 모든 힘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숨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박물학자가 온갖 변형 아래에서 하나의 원형을 보고, 말은 달리는 인간으로, 물고기는 헤엄치는 인간으로, 새는 나는 인간으로, 나무는 뿌리내린 인간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새로운 형태 하나하나가 그 원형의 주된 성격만이 아니라, 부분 대 부분으로, 다른 모든 형태의 온갖 세부와 목적과 조력과 방해와 에너지와 전 체계를 되풀이한다. 모든 직업, 장사, 기술, 거래는 세계의 요약이며 다른 모든 것의 상관물이다. 그 하나하나가 인간의 삶 전체 — 그 선과 악, 그 시련, 그 적들, 그 경로와 그 결말 — 의 온전한 표상이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인간 전체를 담아내고 그의 운명 전부를 이야기해야 한다.

세계는 이슬 한 방울 속에 제 모습을 둥글게 맺는다. 현미경으로도, 작다고 해서 덜 완전한 미생물은 찾아낼 수 없다. 눈, 귀, 미각, 후각, 운동, 저항, 식욕, 그리고 영원을 붙잡는 생식 기관 —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생물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을 얻는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모든 행위 속에 담는다. 편재(遍在)의 참된 교의는, 신이 모든 이끼와 거미줄 속에 그의 모든 부분과 함께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주의 가치는 스스로를 모든 점 속에 던져 넣으려 한다. 선이 거기 있으면 악도 있고, 친화가 있으면 반발도 있으며, 힘이 있으면 한계도 있다. 이리하여 우주는 살아 있다. 만물은 도덕적이다. 우리 안에서는 감정인 그 영혼이, 우리 밖에서는 법칙이다. 우리는 그 영감을 느낀다. 저 바깥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숙명적인 힘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전능하다. 온 자연이 그 손아귀를 느낀다. "그것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것은 영원하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실행한다. 정의는 미루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형평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 "신의 주사위는 언제나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의 주사위에는 언제나 낱이 박혀 있다. 세계는 구구단표와 같고, 어떻게 뒤집어 놓아도 스스로 균형을 이루는 수학 방정식과 같다. 어떤 수를 잡아도, 그 정확한 값이 더도 덜도 아니게 여전히 당신에게 돌아온다. 모든 비밀은 말해지고, 모든 죄는 벌 받고, 모든 덕은 보상받고, 모든 잘못은 바로잡힌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응보라 부르는 것은, 부분이 나타나는 곳마다 전체가 함께 나타나는 보편적 필연이다. 연기가 보이면 불이 있는 것이다. 손이나 팔다리가 보이면, 그것이 붙어 있는 몸통이 그 뒤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모든 행위는 스스로에게 보상한다. 다시 말해 두 겹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완결한다. 첫째는 사물 자체 속에서, 곧 실재하는 본성 속에서. 둘째는 상황 속에서, 곧 겉으로 드러나는 본성 속에서. 사람들은 상황 쪽을 응보라 부른다. 원인으로서의 응보는 사물 자체에 있으며 영혼이 그것을 본다. 상황 속의 응보는 지성이 본다. 그것은 사물과 분리될 수 없으나 흔히 오랜 시간에 걸쳐 퍼져 있어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뚜렷해진다. 구체적인 매질은 죄가 저질러진 지 한참 뒤에 올 수도

있으나, 그것이 오는 것은 죄와 동행하기 때문이다. 죄와 벌은 한 줄기에서 자란다. 벌은, 그것을 감추고 있던 쾌락의 꽃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익어가는 열매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씨앗과 열매는 갈라놓을 수 없다. 결과는 이미 원인 속에서 꽃피고, 목적은 수단 속에 미리 존재하며, 열매는 씨앗 속에 미리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처럼 온전하려 하고 쪼개지기를 거부하는데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행동하고, 갈라내고, 사유화하려 든다. 예컨대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감각의 쾌락을 인격의 필요에서 떼어낸다. 인간의 재간은 한 가지 문제의 해결에 바쳐져 왔다. 감각적인 단맛, 감각적인 강함, 감각적인 빛남 따위를 도덕적인 단맛, 도덕적인 깊음, 도덕적인 아름다움에서 떼어내는 법 — 다시 말해, 이 윗면을 밀이 없어지도록 아주 얇게 도려내는 법, 다른 쪽 끝 없이 한쪽 끝만 얻는 법이다. 영혼은 말한다, 먹으라. 몸은 포식하려 든다. 영혼은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 한 영혼이 될지니라. 몸은 몸만 합치려 든다. 영혼은 말한다, 덕의 목적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라. 몸은 제 목적을 위해 사물에 대한 권력만 가지려 든다.

영혼은 만물을 통해 살고 일하고자 힘껏 애쓴다. 영혼은 유일한 사실이고자 한다. 모든 것 — 권력, 쾌락, 지식, 아름다움 — 이 영혼에 더해질 것이다. 그런데 개별 인간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저 혼자 서기를, 사사로운 이익을 놓고 흥정하고 값을 깎기를 노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기 위해 타고, 입기 위해 입고, 먹기 위해 먹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다스리려 한다. 사람들은 위대해지기를 구한다. 관직과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 한다. 그들은 위대해진다는 것이 자연의 한쪽 면 — 단맛 — 만을 다른 쪽 면 — 쓴맛 — 없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르기와 떼어내기는 꾸준히 좌절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획자도 털끝만큼의 성공조차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갈라진 물은 우리 손 뒤에서 다시 합쳐진다. 전체에서 떼어내려는 순간, 즐거운 것에서 즐거움이, 이로운 것에서 이익이, 강한 것에서 힘이 빠져나간다. 바깥이 없는 안을 얻을 수 없고 그림자 없는 빛을 얻을 수 없듯이, 사물을 반으로 갈라 감각적 좋음만 따로 얻을 수는 없다. "쇠스랑으로 자연을 몰아내 보라, 자연은 이내 달려 돌아온다."

삶은 피할 수 없는 조건들을 스스로 두르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피하려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는 그런 것을 모른다고, 그런 것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뽐낸다. 그러나 그 자량은 입술에 있을 뿐, 조건들은 그의 영혼 속에 있다. 한 부분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더 치명적인 다른 부분을 공격한다. 형식과 외양에서 그것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삶에 저항하여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쳤기 때문이며, 그 응보는 그만큼의 죽음이다. 좋은 것만 취하고 그 세금을 떼어내려는 모든 시도의 실패가 이토록 뚜렷하니, 그런 실험은 아예 시도되지도 않을 것이다 —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므로.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 반역과 분리라는 병이 의지에서 시작되면 지성이 곧바로 감염되어, 사람은 대상 하나하나 속에서 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고, 대상의 감각적 유혹은 보되 감각적 해악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는 인어의 머리는 보되 용의 꼬리는 보지 못하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지 않은 것에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침묵 속에 거하시는 이여, 당신은 어찌 그리 은밀하십니까. 오직 홀로 위대하신 신이여, 고삐 풀린 욕망을 지닌 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섭리로 형벌의 눈땀을 뿌리시는 이여!" 인간의 영혼은 우화와 역사와 법과 격언과 대화가 그리는 그림 속에서 이 사실들에 충실하다. 영혼은 저도 모르게 문학 속에서 혀를 얻는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유피테르를

지고의 정신이라 불렸으나, 전통적으로 그에게 수많은 비열한 행동을 돌린 탓에, 그토록 나쁜 신의 손을 묶어 놓음으로써 저도 모르게 이성(Reason)에 보상을 치렀다. 그는 영국 왕만큼이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유피테르가 흥정해야만 얻을 수 있는 비밀 하나를 알고 있고, 미네르바는 또 하나를 알고 있다. 그는 제 벼락조차 마음대로 얻지 못한다. 그 열쇠는 미네르바가 쥐고 있다.

"모든 신들 가운데 오직 나만이, 그의 벼락이 잠들어 있는 저 견고한 금고의 문을 여는 열쇠를 알고 있노라."

이는 전체(the All)의 내적 작용과 그 도덕적 목적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인도의 신화도 같은 윤리로 끝난다. 실로, 도덕적이지 않은 우화가 만들어져 널리 퍼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아우로라는 연인을 위해 젊음을 함께 청하는 것을 잊었다. 그리하여 티토노스는 불멸이되 늙어 있다. 아킬레우스도 완전한 불사신은 아니다. 테티스가 그를 스틱스 강에 담글 때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기에, 신성한 물이 그 부분만은 씻지 못했다. 니벨룽겐의 지크프리트도 완전한 불사신이 아니다. 그가 용의 피로 목욕할 때 나뭇잎 하나가 등에 떨어졌고, 잎이 덮었던 그 자리는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남았다. 언제나 이러하다. 신이 만든 모든 것에는 금이 하나씩 가 있다. 인간의 공상이 대담하게 놀아 보려고, 낡은 법칙들을 떨쳐 버리려고 시도한 저 거친 시가(詩歌) 속에까지, 이 보복의 사정은 언제나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듯하다. 이 반격, 이 총의 반동은, 법칙이 숙명적임을, 자연에서는 아무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은 값을 받고 팔린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저 오래된 네메시스의 교의다. 네메시스는 우주에서 파수를 서며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지나치지 않는다. 복수의 여신들은 정의의 시녀들이어서, 하늘의 태양이 제 길을 벗어나면 그마저도 벌하리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시인들은 돌담과 쇠칼과 가죽끈이 그 주인의 악행과

은밀한 공감을 나눈다고 이야기했다. 아이아스가 헥토르에게 준 허리띠는 아킬레우스의 전차 바퀴에 매인 그 트로이 영웅을 들판 위로 끌고 다녔고, 헥토르가 아이아스에게 준 칼은 아이아스가 그 위에 얹어져 죽은 바로 그 칼끝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타소스 사람들이 경기의 승자 테오게네스의 조각상을 세웠을 때, 그의 경쟁자 하나가 밤에 찾아가 거둬 내리쳐 그것을 넘어뜨리려 하다가, 마침내 조각상이 받침대에서 밀려 떨어지자 그 밑에 깔려 죽고 말았다고.

이 우화의 목소리에는 신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작가의 의지 위에 있는 사유에서 나왔다. 각 작가의 가장 좋은 부분은 사사로운 것이 전혀 없는 부분이다. 각자의 가장 좋은 부분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부분, 지나치게 부지런한 창안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기질에서 흘러나온 부분이다. 예술가 한 사람만 연구해서는 쉽게 찾지 못하지만, 여러 예술가를 연구하면 그들 모두의 정신으로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그것이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페이디아스가 아니라, 저 이른 헬라스 세계 속 인간의 작품이다. 페이디아스라는 이름과 그의 개인적 사정은 역사에는 편리할지언정, 최고의 비평에 이르면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어진 시대에 인간이 이루려고 향해 가던 것,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이 일하는 기관이었던 페이디아스, 단테, 셰익스피어의 개입하는 의지에 의해 방해받은 — 원한다면 수정되었다고 해도 좋다 — 바로 그것이다. 이 사실은 모든 민족의 격언 속에서 한층 더 인상 깊게 표현된다. 격언은 언제나 이성의 문학이며, 아무 단서 없는 절대적 진리의 진술이다. 격언은 각 민족의 경전과 마찬가지로 직관의 성소다. 겉모습에 사슬로 묶인 채 웅얼거리는 세상이 실재론자에게 그 자신의 말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격언으로는 반박 없이 말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설교단과 의회와 대학이 부인하는 이 법칙 중의 법칙은, 새 때와 파리 때의 가르침만큼이나 참되고 편재하는 격언의

무리를 통해, 모든 시장에서 모든 언어로 시시각각 설파되고 있다.

만물은 짝을 이루어 하나가 다른 하나와 맞서 있다. — 주는 대로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뒷박에는 뒷박, 사랑에는 사랑.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얻으리라. — 신이 말하기를, 무엇을 갖겠느냐? 값을 치르고 가져가라. — 모험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 그대는 그대가 행한 것에 대해 정확히, 더도 덜도 아니게 지불받으리라. —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 해치려고 노리는 자, 해를 입는다. — 저주는 언제나 저주하는 자의 머리 위로 되돌아온다. — 노예의 목에 사슬을 채우면, 그 반대쪽 끝은 그대 자신의 목에 감긴다. — 나쁜 꾀는 꾀를 낸 자를 망친다. — 악마는 열간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 자연의 법칙에 의해 압도되고 규정된다. 우리는 공공의 선과는 동떨어진 하찮은 목적을 겨냥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거역할 수 없는 자성에 이끌려 세계의 양극과 일직선을 이룬다.

사람은 입을 열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동료들의 눈앞에 자신의 초상을 그린다. 모든 의견은 그것을 발설한 사람에게 되돌아와 작용한다. 그것은 과녁을 향해 던진 실꾸리와 같아서, 다른 쪽 끝은 던진 이의 자루 속에 남아 있다. 아니, 차라리 고래를 향해 던진 작살과 같다. 날아가면서 배 안의 밧줄 사리를 풀어내는데, 작살이 시원찮거나 잘 던져지지 않으면, 그 줄은 키잡이를 두 동강 내거나 배를 가라앉히기 십상이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을 당한다. "해롭지 않은 자존심을 가져 본 사람은 없다"고 버크는 말했다. 사교계의 배타적인 인사는 즐거움을 독차지하려는 시도 속에서 자신을 즐거움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 종교의 배타주의자는 남들을 몰아내려 애쓰다가 자기 자신에게 천국의 문을 닫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 사람을 졸(卒)이나 불링핀처럼 다루어 보라. 그들 못지않게 당신도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빼놓고 대하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잃을 것이다. 감각은 모든 인격 — 여자를, 아이를, 가난한 자를 — 사물로 만들려 든다. "그의 지갑에서 못 받아내면 그의 살가죽에서 받아내겠다"는 속된 속담은 건전한 철학이다.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랑과 공정을 어기는 모든 위반은 신속히 처벌된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처벌된다. 내가 동료 인간과 단순한 관계에 서 있는 동안에는 그를 만나는 데 아무런 불쾌가 없다. 우리는 물이 물을 만나듯, 두 기류가 섞이듯, 본성의 완전한 확산과 상호 침투 속에서 만난다. 그러나 단순함에서 벗어나 반쪽만 취하려는 시도, 그에게는 좋지 않고 나에게만 좋은 것을 꾀하는 시도가 생기는 순간, 이웃은 그 잘못을 느낀다. 내가 그에게서 움츠러든 만큼 그도 나에게서 움츠러든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내 눈을 찾지 않는다. 우리 사이에는 전쟁이 있고, 그에게는 미움이, 나에게서는 두려움이 있다.

사회의 모든 낡은 폐단은, 크고 보편적인 것이든 작고 개별적인 것이든, 재산과 권력의 모든 부당한 축적은, 같은 방식으로 복수당한다. 두려움은 대단히 총명한 교사이며 모든 혁명의 전령이다. 두려움이 언제나 가르치는 한 가지는, 그것이 나타나는 곳에는 썩은 데가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썩은 고기를 노리는 까마귀다. 무엇을 노리고 맴도는지 잘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재산은 겁에 질려 있고, 우리의 법은 겁에 질려 있고, 우리의 교양 계급은 겁에 질려 있다. 두려움은 오랜 세월 정부와 재산 위를 맴돌며 흉조를 알리고 낮을 찢그리고 지껄여 왔다. 그 흉측한 새가 거기 있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커다란 잘못들이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의 자발적 활동이 멈추자마자 곧바로 따라오는 저 변화의 예감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대낮의 공포, 폴리크라테스의 에메랄드, 번영 앞에서의 두려움, 모든 너그러운 영혼이 스스로에게 고귀한 금욕과 대속(代贖)의 덕행을 과제로 부과하게 만드는 본능 — 이것들은 인간의 가슴과 정신을 관통하며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의 떨림이다. 세상 경험 많은 이들은, 그때그때 제 몫의 셈을 치르며 가는 것이 최선이고, 사람이 작은 절약의 대가를 비싸게 치르는 일이 흔하다는 것을 잘 안다. 빌리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진다. 백 가지 호의를 받고 하나도 갚지 않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게으름이나 잔꾀로 이웃의 물건이나 말이나 돈을 빌려서 그가 득을 보았는가? 그 행위 위에는 즉시, 한쪽은 은혜를 받았고 다른 쪽은 빚을 졌다는 승인 — 곧 우월과 열등의 승인 — 이 생겨난다. 그 거래는 그 자신과 이웃의 기억 속에 남고, 새로운 거래 하나하나가 그 성질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어 놓는다. 그는 머지않아, 이웃의 마차를 얻어 타느니 차라리 제 뼈가 부러지는 편이 나았음을, 그리고 "물건에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은 그것을 달라고 청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교훈을 삶의 모든 부분으로 넓혀, 모든 청구자를 마주 대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에 대한 모든 정당한 요구를 지불하는 것이 언제나 신중함의 도리임을 알 것이다. 언제나 지불하라. 처음이든 나중이든, 당신은 빚 전부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건이 한동안 당신과 정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유예일 뿐이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빚을 갚아야 한다. 지혜롭다면, 당신에게 더 많은 빚만 지우는 번영을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다. 은혜는 자연의 목적이다. 그러나 당신이 받는 모든 은혜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위대하다. 호의를 받고 갚지 않는 자는

비열하다 —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주에서 단 하나의 비열한 일이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사람에게 되갚을 수 없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다시 갚아야 한다. 한 줄에는 한 줄로, 행위에는 행위로, 한 톨에는 한 톨으로. 너무 많은 좋음이 당신 손안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라. 그것은 금세 썩어 벌레가 쓴다.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내어놓아 지불하라. 노동도 같은 무자비한 법칙의 감시 아래 있다. 신중한 이들은 말한다, 가장 싼 노동이 가장 비싼 노동이라고. 빗자루 하나, 돛자리 하나, 수레 하나, 칼 하나를 살 때 우리가 사는 것은 공통의 필요에 적용된 양식(良識)이다. 당신의 땅에는 숙련된 정원사에게 값을 치르는 것, 곧 정원 일에 적용된 양식을 사는 것이 최선이다. 선원에게서는 항해에 적용된 양식을, 집안에서는 요리와 바느질과 시중에 적용된 양식을, 대리인에게서는 회계와 사무에 적용된 양식을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존재를 몇 곱절로 늘리고, 자신의 온 살림 구석구석에 자기를 펼쳐 놓는다. 그러나 사물의 이원적 구조 때문에,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에서도 속임수란 있을 수 없다. 도둑은 자기 자신에게서 훔친다. 사기꾼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노동의 진짜 값은 지식과 덕이며, 부와 신용은 그 표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표지들은 지폐처럼 위조되거나 도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표하는 것, 곧 지식과 덕은 위조될 수도 도난당할 수도 없다. 노동의 이 목적들은 정신의 실제 노력으로써만, 그리고 순수한 동기에 대한 복종으로써만 이루어진다. 험잡꾼, 빚을 떼어먹는 자, 도박꾼은 그 이익을 강탈할 수 없다. 정직한 수고와 노고가 일하는 이에게 안겨 주는 물질적·도덕적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강탈할 수 없다. 자연의 법칙은 이것이다. 그 일을 하라, 그러면 그 힘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그 힘을 얻지 못한다.

말뚝을 깎는 일에서 도시나 서사시를 짓는 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노동은 그 모든 형태를 통틀어 우주의 완전한 보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예증이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이 법칙은 숭고하다. 주고받음의 절대적 균형, 곧 모든 것에는 값이 있으며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게 된다는 것, 값을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교의는, 국가의 예산에서나 빛과 어둠의 법칙에서나 자연의 모든 작용과 반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부의 숫자 칸 속에서도 조금도 덜 숭고하지 않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익숙한 작업 과정 속에 늘 얹혀 있음을 보는 저 높은 법칙들, 그의 끝날 위에서 번득이고 그의 다림줄과 자로 측정되며 국가의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게 계산서의 합계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그 준엄한 윤리가, 그에게 자신의 생업을 권하고, 비록 입에 올리는 일은 드물지라도 그의 상상 속에서 자신의 일을 드높인다는 것을 나는 의심할 수 없다.

덕과 자연의 동맹은 만물로 하여금 악덕에 맞서 적대적인 전선을 펴게 한다. 세계의 아름다운 법칙과 물질들은 배신자를 뒤쫓아 매질한다. 그는 사물들이 진리와 유익을 위해 배열되어 있으며, 이 넓은 세상 어디에도 악한을 숨겨 줄 소굴은 없음을 알게 된다. 죄를 지어 보라, 대지는 유리로 변한다. 은폐 같은 것은 없다. 죄를 지어 보라, 마치 땅 위에 눈이 한 겹 내린 것 같으니, 숲 속 자고새와 여우와 다람쥐와 두더지의 발자국을 낱알이 드러내는 그런 눈이다. 뺨은 말은 되부를 수 없고, 발자국은 지울 수 없고, 사다리는 건어 올릴 수 없다. 들어온 입구와 단서를 남기지 않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 언제나 결정적인 정황 하나가 새어 나온다. 자연의 법칙과 물질들 — 물, 눈, 바람, 중력 — 이 도둑에게는 형벌이 된다.

다른 한편, 이 법칙은 모든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확실하게 성립한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받으리라. 모든 사랑은 대수 방정식의

양변만큼이나 수학적으로 공정하다. 선한 사람은 절대적인 선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선은 불처럼 모든 것을 제 본성으로 바꾸어 놓기에, 당신은 그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 나폴레옹을 치러 보낸 왕당의 군대들이 그가 다가오자 군기를 내려놓고 적에서 친구로 변했듯이, 온갖 재난 — 질병, 모욕, 가난 — 도 은인임이 판명된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굽이쳐 용감한 자에게 힘과 권능과 신성을 실어다 주지만, 그것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이들은 약점과 결함에게서조차 도움을 받는다. 해롭지 않은 자존심을 가져 본 사람이 없듯이, 어딘가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은 결함을 가져 본 사람도 없다. 우화 속의 수사슴은 제 뿔을 자랑하고 제 다리를 타냈으나, 사냥꾼이 왔을 때 그를 구한 것은 다리였고, 그 뒤 덩불에 걸렸을 때 그를 파멸시킨 것은 뿔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결점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맞서 싸워 보지 않고서는 어떤 진리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듯이, 사람의 장애와 재능에 대해서도, 장애로 고통을 겪어 보고 자신에게 없는 그 재능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철저히 알지 못한다. 사회 속에 살기 어렵게 만드는 기질의 결함이 그에게 있는가? 그로 인해 그는 홀로 지내며 자조(自助)의 습관을 익히도록 내몰린다. 그리하여 상처 입은 굴처럼, 그는 제 껍데기를 진주로 깎는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함에서 자란다. 찢리고 쏘이고 호되게 저격당하기 전에는, 은밀한 힘으로 무장하는 의분이 깨어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기꺼이 작은 사람이 되려 한다. 유리한 조건의 방식 위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잠들어 버린다. 떠밀리고 시달리고 패배할 때, 그는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얻는다. 그는 제 지혜와 제 기개에 의지하게 되었고, 사실을 얻었고, 자신의 무지를 배웠고, 자만이라는

광기에서 치유되었고, 절제와 참된 기량을 얻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편에 선다.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는 일은 그들에게보다 그 자신에게 더 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상처는 아물어 죽은 살갗처럼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승리를 외치려 할 때, 보라, 그는 이미 상처 입지 않는 몸이 되어 지나가 버렸다. 비난은 칭찬보다 안전하다. 나는 신문 지상에서 변호받는 것이 싫다. 나에 대한 말이 모두 비난인 동안, 나는 성공에 대한 어떤 확신을 느낀다. 그러나 나를 위한 꿀 바른 칭찬의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적 앞에 무방비로 누운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모든 악은 은인이다. 샌드위치 제도 사람이 자기가 죽인 적의 힘과 용맹이 자기 몸으로 옮겨 온다고 믿듯이, 우리는 우리가 물리친 유혹의 힘을 얻는다.

재난과 결함과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바로 그 파수꾼들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기심과 사기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준다. 빗장과 자물쇠가 우리의 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며, 장사의 약삭빠름이 지혜의 표지도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속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미신 아래 평생을 시달린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없을 수 없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속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거래에는 말없는 제3의 당사자가 있다. 사물의 본성과 영혼이 모든 계약의 이행을 스스로 보증하므로, 정직한 봉사는 손해로 끝날 수 없다. 배은망덕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그를 더욱 섬기라. 신을 당신의 채무자로 만들라. 수고한 번 한 번이 다 갚아질 것이다. 지불이 미루어질수록 당신에게는 더 좋다. 복리에 복리를 얻는 것이 이 국고의 이율이자 관례이기 때문이다.

박해의 역사는 자연을 속이려는, 물을 산 위로 거슬러 흐르게 하려는, 모래로 밧줄을 꼬려는 시도의 역사다. 행위자가 여럿이든 하나든, 폭군이든 폭도든 다를 바 없다. 폭도란 자발적으로 이성을

버리고 이성의 일을 가로막는 몸뚱이들의 모임이다. 폭도는 스스로 짐승의 본성으로 내려간 인간이다. 그 활동에 알맞은 시간은 밤이다. 그 행동은 그 전체 구조가 그렇듯 미쳐 있다. 폭도는 원리를 박해한다. 권리를 매질하려 하고, 정의를 지닌 사람들의 집과 몸에 불과 폭행을 가함으로써 정의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붙이려 한다. 그것은 별을 향해 뻗치는 붉은 오로라를 끄겠다고 소방차를 끌고 달려가는 소년들의 장난과 같다. 침범할 수 없는 정신은 그들의 악의를 가해자들 자신에게 되돌린다. 순교자는 육보일 수 없다. 가해진 채찍질 하나하나가 명성을 알리는 혀가 되고, 감옥 하나하나가 더 영광스러운 거처가 되며, 불태워진 책과 집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고, 억압되고 지워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진다. 사람들의 정신은 마침내 일깨워지고, 이성엔 눈을 떠 제 것을 정당화하며, 악의는 제 모든 수고가 헛되었음을 발견한다. 매 맞는 것은 매질하던 자요, 파멸하는 것은 폭군이다.

이처럼 만물은 환경의 무차별함을 설교한다. 사람이 전부다. 모든 것에는 두 면,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다. 모든 이점에는 세금이 붙는다. 나는 만족을 배운다. 그러나 보상의 교의는 무차별의 교의가 아니다. 생각 없는 이들은 이런 설명을 듣고 말한다. "잘한들 무슨 소용인가? 선에도 악에도 같은 결말이 있다. 좋은 것을 얻으면 값을 치러야 하고, 좋은 것을 잃으면 다른 것을 얻는다. 그렇다면 모든 행동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영혼 속에는 보상보다 더 깊은 사실이 있으니, 곧 영혼 자신의 본성이다. 영혼은 보상이 아니라 생명이다. 영혼은 존재한다. 완전한 균형 속에서 밀려왔다 밀려가는 이 환경이라는 흐르는 바다 밑에는, 실재하는 존재(Being)의 태고의 심연이 놓여 있다. 실존, 곧 신은 관계나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 존재는 부정을 배제하는 광대한 긍정이며,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모든 관계와 부분과 시간을 자기 안에

삼킨다. 자연과 진리와 덕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유입이다. 악덕은 그것의 부재 또는 이탈이다. 무(無)와 허위는 과연, 살아 있는 우주가 그 위에 자신을 그려 내는 배경으로서의 거대한 밤 또는 그들로 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에게서는 어떤 사실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선도 이를 수 없고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 그것 자체가 해로움이니, 있는 것보다 있지 않은 것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행에 마땅한 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았다고 느낀다. 죄인이 제 악덕과 오만에 매달린 채, 눈에 보이는 자연 어디에서도 위기나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허튼소리가 통렬하게 논파되는 일도 없다. 그렇다면 그는 법칙을 따돌린 것인가? 그가 악의와 거짓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만큼, 그는 자연으로부터 죽어 사라져 간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잘못된 지성에게도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이 치명적인 공제가 영원한 계산을 맞아떨어지게 한다. 다른 한편, 올바른 이득이 어떤 손실을 대가로 사들여져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덕에는 형벌이 없고, 지혜에도 형벌이 없다. 그것들은 존재의 고유한 증가분이다. 덕 있는 행동 속에서 나는 온당히 존재한다. 덕 있는 행위 속에서 나는 세계에 무언가를 보탠다. 나는 혼돈과 무에게서 빼앗아 온 사막에 나무를 심고, 지평선 끝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본다. 사랑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고, 지식에도, 아름다움에도 있을 수 없다. 이 속성들을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 영혼은 모든 한계를 거부한다. 영혼은 인간 안에서 언제나 낙관을 긍정하지, 결코 비관을 긍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진보이지 정거장이 아니다. 그의 본능은 신뢰다. 우리의 본능이 인간에게 '더'와 '덜'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언제나 영혼의 현존에 대해서이지 그 부재에 대해서가 아니다. 용감한

사람은 겁쟁이보다 크다. 참된 사람,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와 악한보다 더 인간이지 덜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덕이라는 선(善)에는 세금이 없다. 그것은 신 자신, 곧 절대적 존재의 유입이며, 어떤 비교급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외적인 선에는 세금이 붙으며, 그것이 공로도 땀도 없이 왔다면 내 안에 뿌리가 없어 다음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자연의 모든 선은 영혼의 것이며, 자연의 합법적인 화폐 — 곧 가슴과 머리가 허락하는 노동 — 로 값을 치르면 얻을 수 있다. 나는 이제 내가 벌지 않은 좋은 것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예컨대 문헌 금단지를 발견하는 일 같은 것을. 그것이 새로운 책임을 함께 데려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더 많은 외적인 재화를 바라지 않는다. 소유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이득은 걸보기일 뿐이고 세금은 확실하다. 그러나 보상이 존재한다는 지식, 그리고 보물을 파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는 고요하고 영원한 평화로 기뻐한다.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의 경계를 좁힌다. 나는 성 베르나르의 지혜를 배운다. "나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내가 입는 해는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니, 내 잘못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참으로 고통받는 자가 아니다." 처지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은 영혼의 본성 속에 있다. 자연의 근본적 비극은 '더'와 '덜'의 구별인 듯하다. '덜'이 어찌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더'를 향한 분개나 악의를 어찌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능력이 모자란 이들을 보면 슬퍼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진다. 그들의 눈을 거의 피하게 된다. 그들이 신을 원망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커다란 불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을 가까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이 산더미 같은 불평등은 사라진다. 태양이 바다의 빙산을 녹이듯 사랑이 그것들을 녹여 없앤다. 모든 사람의 가슴과 영혼이 하나이므로, '그의 것'과 '나의 것'이라는 이 쓰라림은 그친다. 그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 나는 내 형제이고, 내 형제는 나다. 위대한 이웃들에게

가려지고 뒤쳐졌다고 느낄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위대함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나는 내 형제가 나의 수호자이며 더없이 다정한 뜻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내가 그토록 감탄하고 부러워하던 그 재산이 실은 나의 것임을 발견한다. 만물을 제 것으로 삼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영혼의 영원한 본성이다. 예수와 셰익스피어는 영혼의 조각들이며, 나는 사랑으로써 그들을 정복하여 내 의식의 영토에 편입시킨다. 그의 덕 —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가? 그의 재치 —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재치가 아니다.

재난의 자연사(自然史) 또한 이와 같다. 짧은 간격을 두고 사람들의 번영을 무너뜨리는 변화들은, 성장을 법칙으로 삼는 자연이 내거는 예고문이다. 성장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자연의 질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이 내적 필연에 의해, 자신의 사물 체계 전부를, 친구와 집과 법과 신앙을 떠나가고 있다. 마치 조개가 아름답지만 돌처럼 굳은 제 집이 더 이상 성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어 나와 천천히 새집을 짓듯이. 개인의 활력에 비례하여 이 혁명은 잦아지고, 마침내 어떤 더 행복한 정신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모든 세속적 관계가 그에게 아주 험겁게 걸리게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투명한 유동막이 되어, 그 너머로 살아 있는 형상이 언제나 비쳐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처럼 만들어진 시기가 제각각이고 정해진 성격도 없는, 굳어진 잡동사니 직물이 되어 그 속에 인간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야 확장이 가능하며, 오늘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외적 전기(傳記)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 날마다 죽은 환경을 벗어 버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전진하지 않고 안주하며 신적 확장에 협력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에게, 이 성장이 충격으로 찾아온다.

우리는 친구들과 헤어지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천사들을 놓아주지 못한다. 그들이 나가는 것은 오직 대천사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우리는 옛것의 우상 숭배자다. 우리는 영혼의 부(富)를, 영혼 고유의 영원성과 편재를 믿지 않는다. 저 아름다운 어제와 겨루거나 그것을 다시 지어낼 힘이 오늘 속에 있음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한때 빵과 안식처와 살림살이가 있던 낡은 천막의 폐허에서 서성이며, 정신이 우리를 다시 먹이고 덮어 주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음을 믿지 않는다.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달콤하고, 그토록 우아한 것을 다시는 찾을 수 없으리라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헛되이 앉아 울고 있을 뿐이다. 전능자의 목소리는 말한다. "일어나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우리는 폐허 가운데 머물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것에 의지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저 괴물들처럼, 언제나 눈을 뒤로 향한 채 걷는다.

그러나 재난에 대한 보상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성에게 뚜렷이 드러난다. 열병 하나, 신체의 훼손, 잔인한 실망, 재산의 상실, 친구의 상실은 그 순간에는 갇아지지 않은, 갇을 길 없는 손실로 보인다. 그러나 어김없는 세월은 모든 사실의 밑바닥에 깔린 깊은 치유의 힘을 드러낸다. 순전한 박탈로만 보였던 사랑하는 벗이나 아내, 형제, 연인의 죽음은, 얼마 뒤에는 안내자 혹은 수호신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것은 대개 우리 삶의 방식에 혁명을 일으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유년기 혹은 청년기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익숙한 직업이나 가정이나 생활 방식을 해체하여, 인격의 성장에 더 우호적인 새것들이 형성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귄과 새로운 영향의 수용을 허락하거나 강제하는데, 이는 다가올 몇 해에 더없이 중요한 것으로 판명된다. 그리하여 뿌리 내릴 자리는 없고 머리 위 햇볕만 과했던, 별 잘 드는 정원의 화초로 머물렀을 남자나 여자가, 담이 무너지고 정원사의

돌봄이 끊긴 덕분에 숲의 반얀나무가 되어, 넓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열매를 베풀게 되는 것이다.